

# AI 시대 교회교육의 존재론적 재구성

## - 신앙소공동체와 역사-종말론적 공동체

김형희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AI 시대 한국교회의 현실과 구조적 위기

1. 기술 패러다임 사회 구조에 대한 교회의 부적합성
2. 한국교회의 공동체 기능의 약화와 구조적 한계
3. AI 시대 교회교육의 전환 방향

### III. 신앙소공동체 중심의 신학적 재구성

1. 신앙소공동체 이론의 필요성
2. 신앙소공동체의 신학적 구조
3. 신앙소공동체와 역사-종말론적 공동체

### IV. 신앙소공동체 기반 기독교교육의 재구성

1. 교육 목적과 목표
2. 교육 내용
3. 교육 방법
4. 교사와 학습자
5. 교육 환경과 평가

### V. 나가는 말

---

• ABSTRACT •

---

Ont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Age of AI:  
Faith-Based Small Communities and the Historical-Eschatological  
Community

Adjunct Professor, Kim, Hyung Hee (Namseoul Universit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crisis of church education within the technological paradigm and proposes an ont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age of AI. It argues that the crisis is not merely methodological or ethical, but fundamentally ontological and theological, concerning human identity, community, and the nature of the church.

Employing Richard Osmer's consensus model, this study presents faith-based small communities as a theological paradigm and reinterprets them as historical-eschatological communities. Within this framework, it reconstructs the aims, content, methods, roles of teachers and learner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Christian education, and emphasizes an integrated praxis of worship, education, fellowship, service, and mission within the theological structure linking the Kingdom of God, history, and the church. This study ultimately argues that the reconstru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age of AI requires an ontological transformation grounded in SARAMDAM.

**Key words:** the age of AI, ontological reconstruction, Christian education, faith-based small communities, historical-eschatological community, SARAMDAM

---

##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 속에서 신앙소공동체 윤리를 지향하는 교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여기서 ‘신앙소공동체 윤리’는 단순한 공동체 윤리를 넘어 하나님-타자-공동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론적 윤리 구조를 의미하며,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책임이 통합된 신앙의 존재 방식이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사람다움(SARAMDAUM)은 이러한 관계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론적 인간 이해로서,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축소된 인간 이해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해석학적 틀로 기능한다. 사람다움은 교회교육의 존재론적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AI 기술은 인간의 정체성과 관계 형성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며 교회교육의 재구성을 요청한다. 특히 AI는 속도, 범위, 충격을 통해 로봇 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인간의 사고, 가치관, 관계 방식, 정체성 전반을 재구성한다. 이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윤리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며 교육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sup>1)</sup>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와 교회교육 역시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교회교육의 변화를 촉발하였으나, 한국 교회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채 위기와 정체성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교회의 외적 변화는 구성원의 이탈과 교회교육의 약화로 나타난다. 교회 성장 패러다임은 둔화와 침체를 넘어 퇴보 양상을 보이며, 교회교육은 물적·인적 자원의 감소 속에서 질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1) 나영신, “인공지능의 판단 능력에 대한 윤리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83(2024), 140-142.

다음 세대의 탈교회 현상과 교회학교의 위축은 공동체 기능의 약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의 하락은 교회를 고립된 조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sup>2)</sup> 둘째, 교회의 내적 변화는 신앙 정체성의 위기로 나타난다. 교회 구성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메타버스 환경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 공간을 제공한다.<sup>3)</sup> 특히 AI 알고리즘 기반 정보 환경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반복적 콘텐츠 노출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경험을 증가시킨다.<sup>4)</sup> 또한 메타버스 환경은 자아의 파편화와 탈현실화를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sup>5)</sup> 교회교육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sup>6)</sup> 인간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성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sup>7)</sup> 셋째, AI 시대는 정보의 폭증과 동시에 성찰과 내면 형성의 약화를 초래하며, 이는 영성 형성을 저해하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기술 중심 환경은 인간을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전환시키며, 이는 깊은 신앙 형성과 긴장 관계에 놓인다.<sup>8)</sup>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교육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 성찰,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본질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AI 시대 교회교육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는다. 특히 교회다움의 정체성 회복과 공동

2) 김도일, 『현대 기독교교육의 흐름과 중심 사상』(서울: 동연, 2020), 51-52.

3) 김형희, “메타버스 시대의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76(2023), 180-182.

4) 서미경, “AI 시대 기독교 청소년 문화교육의 과제: 디지털 알고리즘과 문화막시즘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83(2025), 210-213.

5) 김형희, “메타버스 시대의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연구,” 186-189.

6) 김정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78(2024), 24-27.

7) Sherry Turkle,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2017), 157-159.

8) 양금희, “AI 시대의 영성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관상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6(2021), 18-21.

체적 신앙 형성은 위기와 기회의 긴장 속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학습 환경이 개인화 학습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경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 성찰이 요구된다.<sup>9)</sup>

이에 본 연구는 신앙소공동체를 교회 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e in ecclesia*)로서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AI 시대 교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교육’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교회의 존재 방식에 근거한 신학적·존재론적 개념으로 이해하며, ‘교회교육’은 이러한 기독교교육이 역사적·제도적 교회 안에서 구현되는 실천적 차원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이를 위해 리처드 아스머(Richard Osmer)의 합의 모델(*consensus model*)을 연구방법론으로 적용하여 기술·경험적 과제(*descriptive-empirical task*), 해석적 과제(*interpretive task*), 규범적 과제(*normative task*), 실용적 과제(*pragmatic task*)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AI 시대 교회교육의 현실을 분석하고, 신앙소공동체 윤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 시대 교회교육의 위기를 방법론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문제로 규정하며, 교회교육의 재구성은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존재론적 전환임을 논증한다.

## II. AI 시대 한국교회의 현실과 구조적 위기

본 장은 아스머의 해석적 과제에 따라 AI 시대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의 위기가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현재 교회교육의 위기를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해석되어야 할 신학적·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9) Wayne Holmes, Maya Bialik and Charles Fadel,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Promises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Boston, MA: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2019), 26-28.

## 1. 기술 패러다임 사회 구조에 대한 교회의 부적합성

AI 시대는 기술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사회 구조를 재편하며 인간의 가치를 기능적 존재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속도, 효율, 정확성이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는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 근본적인 긴장을 형성한다.<sup>10)</sup> 교회와 교회교육 역시 이러한 기술 패러다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sup>11)</sup>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경험이 형성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교육은 그 속도와 구조를 따라가지 못한 채 학습 환경과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회교육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sup>12)</sup>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짧은 영상, 시각화된 정보, 즉각적 상호작용, 경험 중심 콘텐츠에 익숙하다.<sup>13)</sup> 그러나 교회교육은 여전히 20세기형 학교 모델에 머물러 주입식 강의와 교사 중심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AI 시대 학습자의 인지 구조와 학습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sup>14)</sup> 그 결과 교회교육은 학습자의 삶과 분리된 추상적 지식 전달로 인식되며, 학습자는 교회보다 디지털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체성, 공동체성, 영성 형성의 공간은 축소되며,

10) 김형희, “기술 패러다임 시대의 기독교 인성 교육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연구,” 『효학연구』 38(2023), 92-95.

11) 서미경, “AI 시대 기독교 청소년 문화교육의 과제: 디지털 알고리즘과 문화막시즘을 중심으로,” 206-208.

12) 위의 논문, 214-217.

13) 오경환, “인공지능(A.I.) 시대, 예비하는 인간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탐색,” 『기독교교육정보』 82(2024), 150-152.

14) 남선우,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74(2023), 115-118.

교회교육은 관계적·실천적 변화를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나아가 알고리즘 기반 개인화 환경은 최적화된 정보 제공과 동시에 필터 버블을 형성하여 타자와의 만남을 제한하고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약화시킨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웃 사랑과 공동체 윤리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AI 시대 교회교육의 위기는 단순한 기술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성찰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 2. 한국교회의 공동체 기능의 약화와 구조적 한계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는 체계적 교육 구조를 통해 신앙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구조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모든 세대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정의 신앙 전수 기능 약화로 인해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세대 간 신앙의 단절은 가정에서의 신앙 양육 기반을 약화시키며 교회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심화시키고 있다.<sup>15)</sup>

현대 사회의 맞벌이 구조, 핵가족화, 고령화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제한하지만, 가정·교회·사회를 연결하는 교회의 책임은 여전히 유지된다.<sup>1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구조적 재편에 실패하면서 신앙교육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화를 지향해 온 한국교회의 성장 방식은 과거 양적 확장을 이끌었으나, 오늘날에는 공동체성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직은 비

15) 이명희,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한 격대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83(2025), 188-191.

16) 김도일,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7(2016), 58-61.

대해졌지만 관계는 악화되었고, 대규모 예배는 유지되었으나 개인의 영성 형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sup>17)</sup>

또한 교회교육은 충분한 성찰과 시간, 관계적 기반 없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형성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다음 세대 감소, 정책적 빈곤, 복음 제시의 약화, 커리큘럼의 한계, 리더십 부재, 공동체 이해 부족, 관계적 만남의 약화, 가정과 성인 공동체의 분리 등은 신앙적 앎을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sup>18)</sup> 이러한 문제는 AI 시대 교회가 신앙공동체로서의 본질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적 만남의 회복을 통해 복음의 열정과 전문성을 재구성하고, 이를 사회적·교육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는다.

### 3. AI 시대 교회교육의 전환 방향

AI 시대 한국교회는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부적합성과 공동체 기능 약화라는 이중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수적 감소나 자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로서, 부분적 보완이나 프로그램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직면하고 교회와 교회교육의 본질적 구조 전환, 곧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sup>19)</sup> 이러한 전환은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교사와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 환경과 평가 전반에 걸친 총체적 재구성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방법론적 조정이 아니라 기독교교육을 구성하는 신

17) Ibid., 72-75.

18) 최진경,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음 세대의 기독교 신앙교육: 코메니우스의 교육 유산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82(2024), 252-255.

19)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까치, 2013), 29-31 참조.

념, 가치, 실천을 통합하는 해석학적 틀의 전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서구 교회교육에서도 이러한 위기는 이미 지적되어 왔으나,<sup>20)</sup> 한국교회의 경우 이는 단순한 현상적 위기를 넘어 교회의 본질과 존재에 대한 신학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sup>21)</sup> 특히 설교와 가르침의 분리, 교회 구성원의 객체화, 사역 구조의 분절화는 교회의 통합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은 상호 연결되어야 하며, 교회 구성원은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 참여자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교사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지식 전달에서 신앙과 삶의 통합 경험으로, 단회적 예배에서 임재 중심 예배로, 부속 기관 중심 구조에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의 통합적 구조 회복이 필요하다.<sup>22)</sup> 이러한 전환을 포괄하는 신학적·교육적 구조가 바로 신앙소공동체이다. 신앙소공동체는 교회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신앙형성과 공동체성을 통합하는 패러다임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디지털 시대 교회는 물리적 공동체를 넘어 관계적·신학적 공동체 형성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sup>23)</sup>

결국 AI 시대 교회교육의 위기는 단순한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이해와 공동체 구조에 대한 신학적 결핍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신앙소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존재론적 전환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20) John H. Westerhoff,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3rd rev. ed. (Harrisburg, PA: Morehouse Publishing, 2012), 2-3.

21)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서울: 동연, 2020), 37-38.

22)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서울: 동연, 2022), 72-73.

23) Heidi A. Campbell, *Digital Ecclesiology: A Global Conversation* (London: SCM Press, 2020), 46-48.

### III. 신앙소공동체 중심의 신학적 재구성

본 장은 아스머의 규범적 과제에 따라 AI 시대 교회교육에 요청되는 신학적 방향과 공동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 1. 신앙소공동체 이론의 필요성

신앙공동체는 인간의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개입에 응답한 존재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며, 그 역사적·관계적 경험은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sup>24)</sup> 따라서 신앙공동체는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유력한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앙공동체 중심 교육이론은 로렌스 리차즈(Lawrence O. Richards)의 교회론적 공동체 교육, 호레스 부쉬넬(Horace Bushnell)의 가정 중심 신앙교육,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의 선교적 공동체 교육, 칼 넬슨(Carl E. Nelson)과 존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 III)의 종교사회화·문화화로서의 공동체 교육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공동체를 통한 신앙 형성을 강조하며, 교사와 학습자에 대한 관계적 이해, 과정 중심 교육, 잠재적 교육과정, 사회적 실천, 평생교육적 차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sup>25)</sup>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전통과 변혁, 사회화와 가르침 사이의 긴장을 충분히 통합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sup>26)</sup> 특히 예배, 선포, 성례, 교제, 교육, 봉사, 선교와 같은 교회의 존재 양식이 역사·종말론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문제가 제기된다.<sup>27)</sup>

24) Charles R. Foster, *Teaching in the Community of Faith*, 고용수, 문전섭 역. 『신앙공동체를 위한 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013), 58-60.

25) 김도일, 『현대 기독교교육의 흐름과 중심 사상』, 239-240.

26) 은준관, 『교육신학』(서울: 동연, 2013), 481-483.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앙소공동체 이론을 제시한다. 신앙소공동체는 역사-종말론적 백성공동체의 틀 안에서 이해되는 구조로서, 단순한 소그룹을 넘어 교회의 존재 방식과 구조를 재구성하는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규정된다.

## 2. 신앙소공동체의 신학적 구조

신앙소공동체는 성서적 근거, 역사적 모형, 신학적 해석의 통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성서적으로 이는 역사-종말론적 모티브를 지닌 구약의 성막공동체로부터 신약의 예수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체화된 에클레시아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형성된다. 예수와 열두 제자 공동체, 그리고 신약의 가정교회는 예배, 설교, 성례, 가르침, 떡을 떼는 일, 섬김을 통해 교회의 존재론적 표현양식을 드러낸다.

역사적으로 신앙소공동체는 가정교회와 형제·자매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구약의 성막공동체(tabernacle community), 신약의 에클레시아(ecclesia), 가정교회와 형제·자매단을 중심으로 종파적 유형·신비주의적 유형·제도적 교회·분리적 경향으로 존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대표적 모형은 필립 스페너(Philipp J. Spener)의 경건자들의 모임(collegia pietatis), 곧 ‘교회 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e in ecclesia)’ 운동이다. 이러한 흐름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초기 종교개혁 운동과 스페너를 거쳐서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Nikolaus L. Zinzendorf) 중심의 모라비안(Moravian) 공동체와 존 웨슬리(John Wesley)의 감리교 운동으로 이어지며, 공동체 중심의 신앙 형성과 교회 갱신의 전통을 형성하였다.<sup>28)</sup> 이러한 신앙소공동체 운동은 신학

27)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393-394.

28)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22-225.

적으로 교권주의와 성직주의를 극복하고 교회를 하나님 백성공동체로 재구성하려는 개혁적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성직자 중심 구조에서 공동체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한다.<sup>29)</sup>

따라서 신앙소공동체는 다양한 형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며,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변증법적 긴장 속에서 교회를 갱신하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성의 핵심은 성서를 관통하는 역사-종말론적 공동체성에 있다. 결과적으로 신앙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로서, 예배, 설교, 성례, 가르침, 교제, 봉사와 섬김을 통해 현존하는 역사-종말론적 공동체의 존재 양식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신학적 구조이다.

### 3. 신앙소공동체와 역사-종말론적 공동체

신앙소공동체는 역사-종말론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구조이며,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존재하면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를 통합하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이것은 교회를 구축의 주체로 선교의 주체로 만들어온 구속사적 구조(하나님 나라-교회-세계)와 선교적 구조(하나님 나라-세계-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역사-종말론적 교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증언공동체로 재정의한다.<sup>30)</sup>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현존을 분별하고, 역사를 하나님의 터(divine gestalt)로 긍정하며, 책임 있는 실천을 수행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이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called out), 세우시고(called up),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called into) 종말론적 구조 속

29) 위의 책, 384.

30) 은준관, 『교육신학』, 483.

에서 형성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적 공동체이다.<sup>31)</sup> 또한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혁되는 공동체 (transformed community)이자, 역사 속에서 변혁을 실천하는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로 이해된다.<sup>32)</sup>

신앙소공동체에 근거한 교회 구조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e in ecclesia*)’라는 실천신학적 틀 속에서 구현되며, 교회의 다양한 기능은 분절된 역할이 아니라 통합된 존재 양식으로 이해된다. 레이투르기아 (*leitourgia*), 케리그마(*kerygma*), 사크라멘툼(*sacramentum*), 디다케(*didache*), 코이노니아(*koinonia*), 미시오(*missio*)는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존재와 실천이 통합된 구조이다.<sup>33)</sup> 이러한 구조는 세 가지 차원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첫째, 부름받은 공동체는 예배, 선포, 성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응답을 드러낸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역사적 응답이며,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서 교육을 포함하고, 성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미리 경험하는 사건이다.<sup>34)</sup> 둘째, 세움받은 공동체는 가르침과 교제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한다.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고 역사 속에서 증언하는 백성을 세우는 과정이며, 교제는 돌봄과 치유, 교육이 통합된 영적 공동체 경험이다.<sup>35)</sup> 따라서 교육은 특정한 공부시간이나 프로그램에 국한될 수 없다는 점이다.<sup>36)</sup> 셋째, 보냄받은 공동체는 봉사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 이는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따르는 실천으로서, 공동체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으로 확장된다.<sup>37)</sup>

31)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393.

32) 위의 책, 394.

33)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393-395.

34) 위의 책, 398-404.

35) 위의 책, 404-408.

36) Lois Barrett, *Building the House Church*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6), 47-49.

결과적으로 신앙소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역사-종말론적 공동체로서, 부름, 세움, 보냄의 구조 속에서 교회의 존재와 실천을 통합하는 신학적 패러다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사람다움(SARAMDAUM)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이는 하나님-타자-공동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론적 인간 이해의 구현을 의미한다.

#### IV. 신앙소공동체 기반 기독교교육의 재구성

본 장은 아스머의 실용적 과제에 따라 신앙소공동체 기반 기독교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구조와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해럴드 버지스(Harold W. Burgess)의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제시한다.

##### 1. 교육 목적과 목표

신앙소공동체 기반 교육의 목적은 교회를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역사-종말론적 공동체로 형성하는 데 있다. 이는 예배공동체, 배움공동체, 섬김공동체의 통합적 구조로 구체화되며, 교회를 제도적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 존재론적 공동체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의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다.<sup>37)</sup> 교회 안의 작은 교회는 역사-종말론적 공동체를 교회의 존재론적 표현양식으로 회복하는 구조이며, 그 신학적 근거는 제도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sup>38)</sup> 따라서 예배, 설교, 성례전, 교육, 교제, 봉사, 선교는 기능이 아니라 통합된 존재 양식으로 이해되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

37)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408-410.

38)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319.

39)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5.

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주체로 전환된다.<sup>40)</sup>

첫째, 예배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의 구조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사건으로 발생하는 역사-종말론적 자리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적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교육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예배를 위한 교육이 통합된 형태로 수행되며, 공동체는 종말론적 통치를 경험하는 열린 신앙공동체로 구성된다.<sup>41)</sup> 둘째, 배움공동체는 하나님의 세우심에 참여하는 신앙의 구조로서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신앙을 해석하고 형성하는 공동체적 관계로 전환된다. 교육은 교사, 학습자, 교재, 환경의 통합 속에서 성서의 메시지를 삶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경험, 성찰, 적용을 통해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실천적 구조로 발전한다.<sup>42)</sup> 따라서 배움공동체는 지식 전달을 넘어 존재 형성과 공동체적 성숙을 지향하는 교육 구조로 이해된다.<sup>43)</sup> 셋째, 섬김공동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증언하는 신앙의 구조로서 교회를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확장한다. 선교는 교회 확장의 기능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존재 양식이며, 신앙은 삶과 역사 속에서 실천되는 증언으로 구체화된다.<sup>44)</sup> 따라서 섬김공동체는 공동체 내부 형성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실천하는 구조로 이해된다.<sup>45)</sup>

결론적으로 신앙소공동체 기반 교육의 목적은 예배, 배움, 섬김의 통합을 통해 교회의 존재 방식을 역사-종말론적 공동체로 재구성하는 데 있으며, 이는 교회교육을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론적 구조로 전환하는 목적

40) 위의 책, 9-10.

41)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74-76.

42) 위의 책, 77-80.

43)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120-123.

44)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408-410.

45) 위의 책, 413-414.

지향적 모형으로 이해된다.

## 2.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아정체감 형성, 공동체 존재성의 회복, 역사-종말론적 연대의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AI 시대 신앙소공동체 교육의 출발점이다.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인간은 기능적 존재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신학적 규정은 변하지 않는다.<sup>46)</sup>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행하시는지, 인간은 누구이며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재정립이 요구된다.<sup>47)</sup> 특히 디지털 세계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세대에게 기독교적 자아정체감 형성은 더욱 핵심적이다.<sup>48)</sup> 이는 단순한 자기 이해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자기 이해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공동체성, 영성, 디지털 리터러시의 통합으로 구성된다. AI 시대는 기술을 넘어 영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하나님께 존재의 중심을 두는 삶의 태도로 구체화된다. 성경적 묵상과 기도, 영적 일기, 침묵과 성찰은 이러한 형성 과정의 핵심 실천이다.<sup>49)</sup> 동시에 디지털 알고리즘이 다음 세대의 세계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신학적 분별력을 포함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이다.<sup>50)</sup> 무엇보다 AI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공동

46) 김형희, “메타버스 시대의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연구,” 178-180.

47) 조미영, “인공지능 시대의 청소년 죽음교육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82(2024), 214-217.

48) 이은화, 송은희, “신앙 1세대 청년들의 신앙경험 탐색,” 『기독교교육정보』 84(2025), 160-163.

49) 양금희, “AI 시대의 영성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관상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20-23.

50) 서미경, “AI 시대 기독교 청소년 문화교육의 과제: 디지털 알고리즘과 문화막시즘을

체로서의 기독교적 정체성 교육은 필수적이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공동체의 존재성 회복의 문제이다. 교회 안의 교회로서 자생적 신앙소공동체의 회복은 핵심 과제이며,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 존재성을 회복해야 한다.<sup>51)</sup> 동시에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공동체성의 회복은 교회교육의 본질적 과제이다. 하나님의 백성공동체 구성원은 피교육자가 아니라 역사-종말론적 백성공동체의 중심이자 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신앙소공동체는 교재와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과 학교식 신앙교육을 넘어, 환대, 만남, 나눔, 관계, 책임적 삶을 실천적으로 형성하는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물질·정서·시간의 나눔, 상호 돌봄, 공동 식사와 친교, 갈등 해결과 용서, 공동의 사명 수행은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구조이며, 이러한 주체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경험은 디지털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교육적 대안으로 작동한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로서의 연대에 관한 논의이다. 교회는 역사-종말론적 백성공동체의 존재 양식으로서 부름받은 공동체·세움받은 공동체·보냄받은 공동체의 구조 속에서 이해되며, 이는 실천 구조로 구체화된다. 예배는 역사-종말론적 만남과 대망의 자리이며, 설교는 하나님 나라 선포의 사건이고, 성례전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선택적 표지이다. 또한 교육은 하나님 통치의 기억과 소망을 매개하며, 교제는 종말론적 공동체의 역사적 모형을 형성하고,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증언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신앙소공동체 간의 만남을 통해 영성과 전문성의 변증법적 긴장을 형성하며 창조적 공동체성을 유지하게 한다. 나아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육은 말씀과의 만남, 교제는 공동체 간의 만남, 봉사는 이웃과의 만남, 선교는 세계와의 만남이라는 다층

중심으로,” 210-213.

51) 김도일,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독교교육,” 70-73.

적 관계 구조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AI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는 이러한 만남의 구조 속에서 다양한 영역과 연대하며 역사-종말론적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로 형성된다.

### 3. 교육 방법

교육방법은 다양한 신앙소공동체 모델의 활성화, 신앙소공동체 기반의 상호작용적 교육, 디지털 신앙소공동체 구축, AI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대화 교육으로 구조화된다. 첫째, 다양한 신앙소공동체 모델의 활성화이다. 신앙소공동체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교회의 규모나 물질·인적 자원과 무관하게 작지만 강한 공동체로 기능하며, 신앙 실천과 영성 형성의 기반이 된다. 교회는 나이, 성별, 관심사, 영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신앙소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다. 특히 가정 기반 신앙소공동체는 세대 간 신앙 전수의 핵심 모델로 기능한다. 성서와 교회 역사가 증언하듯 신앙의 세대 간 단절은 반복되어 온 문제이며, 교회는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책임을 지는다. 조부모와 부모는 신앙 전수의 핵심 매개자이며, 3대 공동 예배, 가정 내 신앙 대화, 세대 통합 공동체 활동은 신앙 계승의 구체적 장으로 작동한다.<sup>52)</sup>

둘째, 신앙소공동체 기반의 상호작용적 교육이다. 신앙소공동체는 지식 전달 중심의 일방적 교육을 넘어 대화 중심, 경험 기반, 참여 중심, 공동체 중심,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요구한다.<sup>53)</sup>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앙소공동체는 신앙을 해석하고 분별하며 적용하는 공동체적 교수학습 공간으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통해 신앙 경

52) 이명희,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한 격대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83(2025), 189-192.

53) 남선우,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고찰,” 118-121.

함을 나누고, 성경 텍스트와 삶의 이야기를 상호 해석하며, 삶의 문제에 대한 공동 참여적 이해를 형성한다. 또한 문제해결 기반학습을 통해 지역 사회 봉사, 공감과 자비의 실천, 성경 주제 토의, 세대 통합 프로젝트 등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적 삶과 삶의 통합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예배, 봉사, 화해, 공동체 참여로 확장되며 신앙의 실제적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디지털 신앙소공동체 구축이다. 신앙소공동체는 오프라인을 넘어 AI 기반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봇 기술은 신앙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특히 GPT 기반 교리 교육 모델은 디지털 신앙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sup>54)</sup> 디지털 신앙소공동체는 온라인 모임, 메타버스 예배, AI 기반 교육을 통해 신앙 형성과 대화를 확장한다. AI 챗봇 멘토링, 메타버스 소그룹, 온라인 기도 공동체, 온·오프라인 연계 친교와 봉사는 이러한 확장의 구체적 방식이다. AI가 개인화 학습을 담당한다면 공동체는 영성 형성의 중심 구조로 기능한다. 따라서 AI 시대 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공동체적 신앙 형성을 통합해야 한다. 예컨대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신앙소공동체 교육에서 학습자는 콘텐츠를 공동체 안에서 해석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재구성하며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비판적 사고와 신앙 형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넷째, AI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대화 교육이다. 신앙소공동체에 근거한 대화 교육은 교사 중심 구조를 넘어 학습자의 참여와 동기 형성을 촉진하며, 온라인 비대면과 오프라인 대면을 통합하는 교육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에듀테크 SAMR 모델은 대체, 보강, 변형, 재정의의 단계 속에서 교

54) 이성아, “교회학교 교리교육 지원을 위한 챗봇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 GPTs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81(2025), 63-66.

육의 향상과 변혁을 동시에 지향한다.<sup>55)</sup> 또한 이러한 교육은 메타인지 기반 학습과 결합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한다.<sup>56)</sup> 이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학습의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창의적 교수학습으로 확장된다.<sup>57)</sup>

결과적으로 신앙소공동체 기반 교육 방법은 대화, 참여, 실천, 디지털 연계를 통해 신앙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통합하는 구조로 수렴된다. 이러한 교육은 존재론적, 관계적, 실천적 차원의 삼중 구조로 체계화될 수 있다. 존재론적 차원은 교회다움과 사람다움에 근거한 정체성을, 관계적 차원은 상호성·참여·책임의 관계망을, 실천적 차원은 교육·사역·봉사·선교의 구체적 구현을 의미한다. 이 삼중 구조는 교회교육이 존재, 관계, 실천이 통합된 총체적 패러다임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신앙소공동체 기반 기독교교육은 예배, 배움, 섬김의 통합을 통해 교회다움과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실천적 교육 구조이며, 이는 단순한 방법을 넘어 교회의 존재 방식을 재구성하는 교육 패러다임이다.

#### 4. 교사와 학습자

신앙소공동체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신앙과 경건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공동체 안에서 세움을 받아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주체이다. AI 시대에 이들은 신앙 해석자이자 영적 동반자로 기능한다. 신앙 해석은 일상의 과정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습자는 성경과 삶을 공동체 안에서 해석하며, 함께 참여하고 함께

55) Wayne Holmes, Maya Bialik and Charles Fadel,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Promises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8.

56) 이성일, 『메타인지 수업』(서울: 경향BP, 2021), 20-21.

57) 손리사, 『메타인지 학습법』(과주: 21세기북스, 2019), 6-7.

걸어가는 순례적 존재로 살아간다.

특히 교사는 영성과 전문성의 통합을 통해 하나님과 학습자의 만남을 매개하는 존재이다. 영적 돌봄 속에서 복음을 함께 경험하고 해석하며 삶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교사는 본을 보이는 실천성, 학습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성,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와 소명을 갖춘 존재로서, 신앙적 헌신 위에서 교육의 영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반면 학습자는 피동적 수용자를 넘어 능동적 참여자로서 자신의 신앙 경험을 나누고 공동체적 책임을 감당하며 신앙소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주체이다. 결과적으로 교사와 학습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이분법을 넘어, 신앙을 공동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상호적 존재이다. 이는 AI 시대 교회교육이 지향하는 사람다움(SARAMDAUM)의 교육적 구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5. 교육 환경과 평가

교육환경은 신앙소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관계적·영적·디지털 통합 환경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적 상호작용, 그리고 디지털 매체가 결합된 총체적 학습 환경을 의미한다. 특히 AI 시대의 교육환경은 오프라인 공동체 경험과 온라인 디지털 환경이 상호 연동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되며, 신앙 해석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앙소공동체는 현대, 참여, 책임의 관계 구조를 기반으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영성 형성과 공동체적 삶을 통합하는 핵심 공간이 된다. 동시에 디지털 환경은 개인화 학습과 확장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공동체는 이를 신앙적 해석과 실천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는 결과 중심의 측정을 넘어 과정 중심의 형성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신앙 지식의 습득 여부가 아니라, 신앙 해석, 공동체 참여, 삶의 실천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평가는 첫째, 존재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여부, 둘째, 관계적 차원에서 공동체 참여와 상호성의 실현 정도, 셋째, 실천적 차원에서 신앙의 삶으로의 적용과 책임적 행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교사에 의한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자기 성찰, 공동체적 피드백, 그리고 지속적 대화를 포함하는 상호적 평가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성찰하고 재구성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장의 방향을 확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AI 시대의 신앙소공동체 교육환경과 평가는 신앙의 삶과 삶, 개인과 공동체, 오프라인과 디지털을 통합하는 총체적 형성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람다움(SARAMDAUM)을 구현하는 교육적 구조로 수렴된다.

## V. 나가는 말

신앙소공동체는 역사-종말론적 공동체이자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운동으로서, 성막공동체, 예수와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 가정교회, 종교개혁 이후 경건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온 교회의 본질적 존재 방식이다. 이러한 전통은 다양한 시대와 맥락 속에서 재현되어 왔으며, AI 시대로 전환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준다. 따라서 AI 시대 교회교육은 신앙소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공동체 존재성 회복, 역사-종말론적 연대의 실천을 통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신앙소공동체 모델의 활성화, 상호작용적 교육, 디지털 신앙소공동체 구축, AI 기반 대화 교육이 요청되며, 교사와 학습자는 신앙 해석자이자 영적 동반자로서 공동체

를 함께 형성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AI 시대 교회교육을 기술 수용의 문제가 아닌 존재론적 재구성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신앙소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적 관계성과 신앙 정체성 회복의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회 현장에서의 실증적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AI 시대 교회교육은 신앙소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과 공동체,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사람다움의 교육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 방법의 개선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존재론적 전환이며, 사람다움에 근거한 인간 이해와 공동체 형성을 통해 구체화된다.

## 참고문헌

-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 김도일. 『현대 기독교교육의 흐름과 중심 사상』. 서울: 동연, 2020.
- \_\_\_\_\_.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7(2016), 51-93.
- \_\_\_\_\_.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미래 마인드와 책임적 리더십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51(2017), 75-100.
- 김영미. “포스터의 신앙공동체 이론을 통한 다문화 기독교교육 모델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1(2017), 329-364.
- 김정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78(2024), 21-55.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김형희. “호모 크레토스를 지향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70(2022), 141-173.
- \_\_\_\_\_. “메타버스 시대의 기독교 자아정체감을 위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76(2023), 173-192.
- \_\_\_\_\_. “기술 패러다임 시대의 기독교 인성 교육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연구』 38(2023), 85-107.
- \_\_\_\_\_. “다음세대의 공적 신앙과 공적 책임을 지향하는 기독교교육: 그룸(Thomas H. Groome)의 Shared Praxis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3(2019): 177-202.
- 나영신. “인공지능의 판단 능력에 대한 윤리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83(2024), 135-179.
- 남선우.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74(2023), 107-134.
- 서미경.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 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7(2021), 157-194.
- \_\_\_\_\_. “AI 시대 기독교 청소년 문화교육의 과제: 디지털 알고리즘과 문화막시즘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83(2025), 203-231.

- 손리사. 『메타인지 학습법』. 파주: 21세기북스, 2019.
- 양금희. “AI 시대의 영성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관상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6(2021), 11-48.
- 오경환. “인공지능(A.I.) 시대, 예비하는 인간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탐색.” 『기독교교육정보』 82(2024), 147-168.
- 옥장흠. “메타버스의 기독교교육 적용방안.” 『기독교교육논총』 70(2022), 37-74.
-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동연, 2020.
- \_\_\_\_\_. 『실천적 교회론』. 서울: 동연, 2022.
- \_\_\_\_\_. 『기독교교육현장론』. 서울: 동연, 2022.
- \_\_\_\_\_. 『교육신학』. 서울: 동연, 2013.
- 이규민.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한 대안 모색: 생명과 생명력 고찰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81(2015), 201-233.
- 이명희.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한 격대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83(2025), 183-202.
- 이성아. “교회학교 교리교육 지원을 위한 챗봇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 GPTs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81(2025), 57-80.
- 이성일. 『메타인지 수업』. 서울: 경향BP, 2021.
- 이은화, 송윤희. “신앙 1세대 청년들의 신앙경험 탐색.” 『기독교교육정보』 84(2025), 153-178.
- 조미영. “인공지능 시대의 청소년 죽음교육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82(2024), 205-239.
- 최은택. “뉴노멀 시대의 공적 신앙 회복을 위한 교육설교: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115(2024), 315-355.
- 최진경.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음 세대의 기독교 신앙교육: 코메니우스의 교육 유산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82(2024), 241-265.
- Barrett, Lois. *Building the House Church*.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6.
- Birkey, Del. *The House Church: A Model for Renewing the Church*.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8.
- Campbell, Heidi A. *Digital Ecclesiology: A Global Conversation*. London: SCM Press, 2020.
- Dunn, James D. G.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An Inquiry into*

- the Character of Earliest Christianity*, 3rd. ed. London: SCM Press, 2006.
- Foster, Charles R. *Teaching in the Community of Faith*. 고용수, 문전섭 역. 『신앙공동체를 위한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고용수 역.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Holmes, Wayne., Bialik, Maya. and Fadel, Charles.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Promises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Boston, MA: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2019.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까치, 2013.
- Lohfink, Gerhard.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서울: 분도출판사, 1996.
- Lynn, Robert W., Wright, Elliott. *The Big Little School: Two Hundred Years of the Sunday School*, 2nd ed.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0.
- Meissner, William W. *Psychoanalysis and Religious Exper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 Moore, Mary E. M. *Teaching from the Heart*. 장대현 역. 『심장으로 하는 신학과 교육』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 Spener, Philip J. *Pia Desider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4.
- Turkle, Sherry.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2017.
- Westerhoff,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8.
- Westerhoff,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3rd rev. ed. Harrisburg, PA: Morehouse Publishing, 2012.

논문투고일: 2026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6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15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교회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AI 시대 교회교육의 존재론적 재구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회교육의 위기가 단순한 방법론적 혹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정체성과 공동체, 교회의 본질에 관한 존재론적·신학적 문제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리처드 아스머(Richard Osmer)의 합의모델(consensus model)을 적용하여 신앙소공동체를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이를 역사-종말론적 공동체로 재해석한다. 또한 이러한 틀 안에서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교육 환경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며, 하나님 나라-역사-교회의 신학적 구조 속에서 예배·교육·교제·봉사·선교의 통합적 실천을 지향한다. 나아가 AI 시대 교회교육의 재구성은 사람다움(SARAMDAUM)에 근거한 존재론적 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교회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의 회복을 지향한다.

**주제어:** AI 시대, 존재론적 재구성, 기독교교육, 신앙소공동체, 역사-종말론적 공동체, 사람다움(SARAMDAUM)

---